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히브리서 1~2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유혹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꺼이 필멸의 몸을 입으셨다. (35~40분)

몇몇 학생들을 미리 선정해 그들의 어렸을 때 사진과 비슷한 연령 때 찍은 부모들의 사진을 공과 시간에 가져오게 한다. 사진들을 전시해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부모의 사진과 그들의 자녀의 사진을 서로 짝맞추어 보게 한다. 부모와 그 자녀의 짝을 맞추는 데 어떤 신체적인 특성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읽는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특성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볼 수 있다면, 두 분이 얼마나 유사하게 보일 것인가?

신체적인 유사점 이외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른 특성들을 학생들과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10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express image)이 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한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권능, 또는 특성을 찾아보면서 **히브리서 1장 6~12절을** 읽도록 한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 장에서 나온 다음 사항들을 칠판에 적을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2장 7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세에서 하나님이었다면, 왜 그분께서는 지상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길을 택하셨는가?

이 개념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머지 자녀들을 위한 대속을 수행하시기 위해 기꺼이 지상에 오셨음을 설명한다. (히브리서 2:9; 빌립보서 2:5~11; 모사이야서 3:5~9 참조)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의 보좌를 떠나, 필멸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겪으며,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치르시려는 구주의 기꺼운 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불린다. (니파이전서 11:26~33)

학생들에게 **히브리서 2장 10~18절을** 눈으로 읽게 한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분의 바람이 주님으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받으시도록 동기를 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보도록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어떤 구절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는가? 그 이유는?
- 그분께서도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더욱 잘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학생들과 나눈다.

저자 및 시기: 서기 400년경 이후 히브리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기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용된 문체와 언어가 바울의 다른 서한들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한의 저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더라도 히브리서에 있는 교리들은 바울의 다른 서한에서 나타나는 교리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을 만들 때, 이 편지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선지자는 "바울은 히브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59쪽)라고 가르쳤다.

이 서한이 쓰여진 시기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서기 70년에 있었던 성전의 파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성전에 대해 항상 현재 시제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그 시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바울이 저자라면 그의 사망 시기인 서기 65년경 이전에 기록되었어야 한다.

대상. 이 서한은 대부분 구약전서에 있는 주제와 관습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서한의 대상은 유대인(히브리인) 기독교도들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 사도행전과 이미 다루었던 서한들에서 보았듯이 이방인 기독교도와 유대인 기독교도 사이에는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종종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복음에 충실하게 남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전서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격려하는 것이었다.

모세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흥미있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모세의 율법이 기독교도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무엇이 구약전서의 참된 가치인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다.

몇 가지 가능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초기에 기독교도들이 가진 유일한 경전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전서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신약전서는 준비 과정에 있었으며, 또 신약전서가 표준경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삼백 년 후의 일이었다. 히브리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구약전서와 모세의 율법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오래된 율법보다 우선되어야 했다.

주제. 바울은 하나님의 장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 분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골로새 성도에게 가르쳤다. (골로새서 1:12~18) 히브리서는 아버지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높으시다는 사실을 이 주제에 덧붙인다. 따라서 그분은 율법의 옛 성약을 성취하고 복음의 새로운 성약을 집행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한 후기 성도 교육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신약 전서에서 히브리서는 ... 구약 전서에서 레위기가 하는 역할을 한다. 레위기가 모세의 율법 체제를 공표했다면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해 준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레위기의 질서라는 토양에서 복음이 어떻게 성장해 나왔는가를 보여준다. 그의 시대에 회복된 복음의 빛에 의해 그는 레위기 체제가 어떻게 육육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안식처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는지 보여준다."

"사복음서를 포함해 신약전서의 어떤 책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이 서한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 것은 없다. 이 서한에서 바울은 모세 율법 체제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모세의 율법 체제의 실체를 바로 나사렛 예수 및 그의 대속 희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조셉 필딩 맥콩키, 예수 그리스도, 상징, 그리고 구원, 로버트 엘 밀레트 편, 경전 연구: 제6권,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1987년], 192쪽)